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자포럼 회장



자기 성찰과 절제로 정직과 상식을 되찾자

조국(曹國) 사태로 우리 사회는 한 바람 광풍(狂風)이 휘몰아치는 것 같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사이비(似而非) 종교의 광신도를 보는 것 같다. 옳고 그름의 사리(事理)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교주(敎主)나 진영(陣營) 논리에 매몰되어서 아무 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나 보다. 수십만 명이 모여서 범의 혐의자 조국을 위하여 외치는 '조국 수호' 주장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 무죄'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똑 같았다.

평소 그래도 지식인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 진보적인 작가라는 사람들, 오피니언 리더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허황된 궤변(詭辯)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조국 사태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이 '좁이에 물린 것 같다'고 한 말이 실감난다. 사람은 지식이 있고 똑똑한 것 같아도, 짧은 정보와 집단 분위기 등에 휩쓸리면 잠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편견의 함정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하게 된다. 조국 수호를 앞장서서 외치고

싸웠던 투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신과 당(黨)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국의 위선과 불의를 응호했던 당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상심(傷心)이 낳은 결론이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용기 있고 양심과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는 것은 가느다란 희망을 주고 있다.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두 의원의 말에 공감하면 서도 말하지 못하고 꿀 먹은 방아리가 되어 있는 많은 의원들을 보고 있다. 국민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모두 보고 있고 마음의 수첩에 적어 놓고 있다.

야당도 아무런 혐의 없으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따지고 반대는 해도 장관 임명을 해도 그런대로 넘어간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드러난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조국 부인 정경심 등양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더 많은 18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언론이

추측을 혐의로 만들고 혐의를 사실로 만들고 있다'고 언론을 비난했다. 그러나 언론도 딱딱한 기자들이 상상력으로 허구(虛構, fiction)를 쓰는 소설가가 아니다. 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fact)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검찰은 어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많은 지식과 수사 경험을 갖고 있는 검찰도 법과 원칙,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치적 사건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한다고 해서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誦道斷)이다. 검찰은 집권세력의 중견(忠犬)이 되어서 야당을 탄압하는 과거 사례에서 비난 받았다. 조국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 집권층의 핵심 측근을 수사하는데, 집권층이 검찰을 비난하고 방해하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살아있는 권력,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행

태는 검찰 개혁의 역행(逆行)이다.

둘째, 수사권과 기소권(起訴權)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의 분산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서 검찰을 견제하자는 취지다. 공수처의 구성과 운영을 잘못하면 또 다른 부작용과 괴물의 탄생을 볼 수도 있다.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국정 농단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을 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되고 최순실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야당을 도와주었다고 글을 썼다. 지금은 조국 장관을 임명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되고 조국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야당을 도와주고 있다. 3년도 못 되어서, 문 대통령의 인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했던 '탄핵'과 '하야(下野)'라는 말이 문 대통령을 향하여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쏟아지는 현실을 보고 있다.

2570년 전에 탄생한 공자는 '배워도 깊이 사색하지 않으면 혼미하여 밝지 못하고(학이불사즉망, 學而不思則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오류나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사이불학즉태, 思而不學則殆)'고 삶을 관통하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끊임없이 성찰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절제로 정직과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

社說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 살려야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등급제 폐지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잔뜩 기대를 가졌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심(傷心)만 커졌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의학적 기준의 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해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영역을 시작으로, 2020년 주거 이동, 2022년 소득 고용 분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문 투성'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어마어마한데 예산이 확대되지 않아 아쉬움만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활동지원 예산 확대 ▲판정 전달체계에서의 권리 보장 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활동지원과 관련해 예산액수의 규모만 보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2019년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서비스 수가 인상 확대 말고는 이뤄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으나 핵심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전제조건이자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관련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생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신고 123
-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풍철 산행 사고, 안전이 먼저다

국립공원공단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모두 2,988만 명이며, 특히 10월에만 평소보다 배에 가까운 449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4-'18)간 발생한 등산사고로는 모두 36,718건이 발생해, 이 중 10월에만 4,845

건(13%)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전체사고의 절반이상인 58.6%가 서울(7114건, 19.4%), 경기(6,957건, 18.9%), 경남(3,798건, 10.3%), 강원(3,683건, 10.0%)에서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실족·추락 사고가 12,20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사고 6,623건(18%), 안전수칙불이행 5,709건(16%), 개인질환 4,135건(11%)으로 나타났다.

요즘 같은 가을환절기 산행은 등산로와 풀숲에 맺힌 이슬이 마르지 않아 평소보다 등산로가 미끄러워, 마찰력이 좋은 미끄럼방지 등산화와 착용하고, 걸을 때도 돌이나 바위를 피해 발바닥 전체로 땅을 밟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에는 조금만 마음에 하산을 서두르다 실족하거나 조난되기 쉬우므로 해가지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하산한다. 또한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 무리한 산행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 소지와 함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하산한다.

임영진 / 화순 능주119안전센터 소방위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